

시작	미친 과학자가 마을의 반려동물들을 훔쳐 몬스터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뽕뽕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버린 강아지, 어디로 간걸까 ?				
	* 주인과 강아지의 서사 필요 (원래 키우던 반려견의 세끼여서 더 서사가 깊은지)				
1스태이지	마을에 남아있는 몬스터(동물들이 변한 것)를 무찌르는 이야기				
	* 1스태이지기 때문에 난이도는 쉽게. 몬스터는 체력·방어력만 높고 공격력을 낮게하고 서브 스테이지가 높아지면 데미지 스킬 몇개 붙여주기				
2스태이지	미친 과학자는 일정량의 실험대상을 데려가기위해 마을로 내려왔고, 자신의 계획에 맞는 동물들만 데려갔다. 동물 실험이 완성되면 사람을 실험할거라는 소문들로 마을 사람들은 집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고 모험을 떠나겠다는 주인공을 말려섰지만 어쩌면 주인공이 과학자를 물리치고 마을이 평화를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인공을 보내준다. 주인공은 과학자가 사는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과학자의 실패작들과 마주치게 된다.				
	* 1스태이지와 반대로 몸은 약하고 데미지는 세게하기				
	* 몸 스킬에 도트템 또는 cc기 넣는 대신 그것빼고 다른 스펙을 약하게 만들기				
	* 특별하게 깎 수 있는 스테이지 넣기(몇턴동안 공격안하면 자동으로 이기는 등)				
(2.5스태이지)	- 나중에 추가한다면 추가할만한 얘기				
	미친 과학자의 본거지로 가는 길에 만나는 야생의 적들				
3스태이지	과학자 본거지에 도착한 주인공, 본격적으로 반려견을 되찾기위해 본거지를 지키는 몬스터와 싸우게 되고, 결국 다음 실험대상으로 실험실에 갇혀있는 반려견을 찾게 되고 완성된 몬스터 물약을 든 과학자와 마주치게 된다. 반려견을 되찾으려는 주인공과 마주한 과학자는 실험을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몬스터 물약을 본인에 몸에 주사하게 되고 몬스터로 변한 과학자와 마지막으로 싸우게되는 주인공				
	* 보스 스테이지이니 몸 기본 스펙도 좋고 몸 스킬에 cc기, 도트템은 기본에 시간이 된다면 캐릭터 스킬에 없는 특수스킬도 만들 생각 해볼범함				